

VOL.1
2022. 3.

성신-임명섭
한국학 회보
Journal of Korean Studies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



목 차

2022. 3. VOL.1



◆ 한국학의 정착을 위하여 4

For the establishment of Korean studies

강진호 Jinho Kang

◆ K-뷰티, 우연의 신화는 없다 6

K-beauty, there is no myth of coincidence

김주덕 Juduk Kim

◆ K-컬처를 짚어본다 14

Take a look at K-culture

심두보 Doobo Sim

◆ 한국학 연구와 디지털 인문학 19

Korean Studies and Digital Humanities

김일환 Ilhwan Kim

◆ 해외 한국학 연구 동향 23

Research Trends of Overseas Korean
Studies

최지선 Jisun Choi

◆ 한시 러브레터,

이행과 박은의 우정 30

Chinese poetry love letter, Haeng-Lee and
Eun-Park's friendship

강혜선 Hyesun Kang

◆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

설립 취지 36

Sungshin-Im, Myeongseop Korean Studies

Institute establishment purpose and
research support



◆ **근대 한국학 교과서(<국민소학독본>) 37**

◆ **성신여자대학교 국제화 및 교류사업 38**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ternationalization and Exchange business
이형민 Hyungmin Lee

◆ **성신 교류프로그램 40**

Sungshin's Incoming programs

◆ **몽골에서 한국어 교육의 성과와 발전 방향(연구결과보고서 1) 44**

Performance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Mongolia
토야 Toya

◆ **Appreciate Korean Classical Poetics From the Perspective of "Xiang" (연구결과보고서 2) 47**

Poetics From the Perspective of "Xiang"
김해구 Jin Haijiu

◆ **연구 사업 지원 현황 50**

Research project support

◆ **연구비 신청 안내 51**

Research grant application guide

인쇄 · 발행일 2022년 3월
발행인 강진호 편집인 최지선
발행처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
주소 서울 성북구 보문로34 다길2
성신여대 수정관B동 718호
인쇄 제이앤씨

한국학의 정착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지난 9월 1일자로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 소장을 맡은 국문학과
과의 강진호입니다.

연구소가 설립되어 운영된 지 어언 2년이 되었습니다.

<임명섭 한국학연구소>는 한국학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세계 각국에
한국학을 전파하고, 고 임명섭 회장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철학을 실
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성신-임명섭 한국학 휘보(彙報)>는 본 연구소의 활동과 성과를 대외에 알리고, 한국학 연구지
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간행됩니다. 한국학(Korean Studies)이란 한국을 탐구의 대
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한국과 관련된 언어와 문화, 정치와 경제, 사회와 과학 등의 모든 영역을
인식과 탐구의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학은 최근 한류(韓流)의 확산과 더불어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상하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세계적인 유행이 된 한류는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타이·인도네시아·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최근에는 유럽과 북미, 남미와 아프리카 대륙으로까지 영
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류는 또한 단순한 드라마와 가요와 영화 등 대중문화 영역에서 벗어나 김
치와 라면과 고추장 등 한국 상품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수와 배우가 좋아
서 한국에 애정을 느끼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류가 일시적인 유행에 머물지 않고 한국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학을 좀 더 심화하고
천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학은 아직도 일본학이나 중국학에 비해 온전한 위상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한국학이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갖춘 독립된 학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는 한국학의 확산과 연구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한국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본 연구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일

소장 강진호

For the establishment of Korean studies

Hello. I am Kang Jin-ho of the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who is the director of the <Sungshin-Lim Myung-seop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s of September 1st. It has been two years since the institute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Lim Myeong-seop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was established to spread Korean studies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rough the vitalization of Korean studies and to realize the philosophy of the late Chairman Lim Myung-seop's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Sungshin-Lim Myungseop Korean Studies Bulletin (彙報)> is published to inform the public of the activities and achievements of this institute and to effectively carry out research support projects for Korean studies. Korean Studies is the study of Korea as an object of research and recognition and exploration of all areas related to Korea, such as language and culture, politics and economy, and society and science. Korean Studies has recently become a global concern with the spread of the Korean Wave.

The Korean Wave, which has become a global trend since the late 1990s, has spread not only to China but also throughout Southeast Asia such as Vietnam, Thailand,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and has recently expanded its territory to Europe, North America, South America and Africa. The Korean Wave is also expanding its scope to Korean products such as kimchi, ramen, and red pepper paste, beyond the realm of popular culture such as simple dramas, songs, and movies. More and more people are feeling affection for Korea, learning Korean, and purchasing Korean products because they like Korean singers and actors.

In order for the Korean Wave to develop into Korean studies without staying in a temporary trend, it is necessary to deepen and inquire into Korean studies. It is hard to say that Korean studies still have a full status compared to Japanese studies or Chinese studies. In order for Korean Studies to be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discipline with a unified system, more people should be interested in and research Korean Studies.

<Sungshin-Lim Myung-seop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ims to contribute to the spread and research of Korean Studies. If you are interested in Korean Studies, please feel free to visit this institute.

March 1, 2022
Director Jinho Kang

K-뷰티, 우연의 신화는 없다 -한국의 미용문화는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되었나-

김주덕 |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교수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본능일까, 사회문화적 가치관에 의해 강요된 것일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결론내리기 어려운 이 흥미로운 주제로 인해 인류의 역사가 수많은 변곡점을 맞이해왔다는 점이다. 오늘날 'K-뷰티'로 불리며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미의 역사 역시 거슬러 올라가면 태초의 신화들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수많은 역사적 현장의 중심에 서 있었다.

본론에 앞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름다움'이란 단어가 단순히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외형을 평가하는 데 쓰이는 경박하고 피상적인 표현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아름답다'라는 말 속에는 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가치관과 대상의 존귀함에 대한 찬사가 깃들여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K-뷰티'라는 말의 쓰임이 그저 엇비슷하게만 보이는 동북아시아인들의 외형을 뭉뚱그려 칭찬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이 일궈온 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찬사임을 알아야 한다.



K-뷰티, '산업'이 되다

'아름다움'이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산업'의 범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만들어낸 재화나 서비스가 '산업'의 범주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생계를 유지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용은 근대 이후에야 산업으로서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1870년 국내 최초의 화장품박람회격인 경성박람회를 통해 서구의 화장법이 정식으로 소개된 이래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화장품산업은 점차 가내수공업의 형태에서 벗어나 ‘산업’으로서의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 정부에서도 위생국을 설립해 화장품의 수입과 통관 절차를 관리하고 국산화장품의 허가 및 등록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렇게 탄생한 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화장품 브랜드 ‘박가분(朴家粉)’이다.



▲ 박가분

박가분은 1915년 당시 포목점을 운영하던 박승직의 아내 정정숙이 저자거리에서 백분을 만들어 파는 노파를 보고 남편에게 포목점의 판촉용 상품으로 백분을 만들어볼 것을 제안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박승직은 두산그룹 창립자인 박두병의 선친으로, 그가 창립한 화장품 브랜드 ‘박가분’이 오늘날 두산그룹의 모태가 된 셈이다. 두산유리의 상표인 ‘파카 크리스탈(Parka Crystal)’이 박가분의 ‘박가’를 영문으로 표기한 것에서 유래하였다니 그 영향력이 단지 화장품산업에만 머물렀던 것은 아니라 하겠다.

대한민국 최초의 화장품 브랜드라고는 하나 백분은 이미 조선시대부터 널리 통용되던 화장품의

로, 박가분의 제조방식 역시 전통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하루 1만 갑 이상이 팔려나갈 만큼 크게 인기를 끈 것은 휴대성을 높인 작은 상자 포장과 자신의 성씨를 로고로 사용한 상표 디자인 덕분이었다. 박가분의 인기로 ‘서가분(徐家粉)’, ‘장가분(張家粉)’ 등의 유사품이 연이어 등장했고, 이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화장품산업이 촉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안타깝게도 박가분은 납성분의 폐해로 큰 소송전에 휘말리는 등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1937년 생산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는 이미 아모레퍼시픽 창립자인 서성환 회장의 부친 서대근이 설립한 창성당을 비롯해 태양리화학, 피카몬드 향수, 에레나 화장품, 동보화학 등의 화장품 회사가 잇따라 등장하여 화장품산업은 잠시나마 활황을 띠었다. 이를 못마땅히 여긴 일제의 통제와 억압이 시작되면서 자생적 성장이 가로막히긴 하였으나 1942년 일제가 조선의 화장품 산업을 통제하고 고율의 세금을 매기기 위해 결성한 조선화장품제조업조합은 해방 후 그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조선화장품협회, 조선화장품공업협회, 대한화장품공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로 탈바꿈하며 화장품제조업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전쟁의 흑독함을 이긴 강인한 생명력

오늘날 K-뷰티의 성공을 두고 흔히 K-드라마, K-팝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공에 편승한 K-컨텐츠의 아류쯤으로 폄훼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는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크나큰 오해다. 대한민국 화장품산업의 현대화는 전쟁과 폐허로 얼룩진 195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해방과 동시에 한국의 화장품산업은 다시금 호황을 맞이하였는데, 당시 서성환이 서울의 회현동에 터를 잡았던 태평양화학(현 아모레퍼시픽) 역시 동백오일을 원료로 한 머릿기름인 ABC포마드로 크나큰 인기를 얻었다. 한국전쟁의 발발로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향한 서성환은 그곳에서 공장을 세우고 ABC바니싱크림, ABC수백분, ABC유액 등을 라인업하며 화장품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그가 서울로 돌아와 대한민국 최초의 화장품회사 연구실을 설립한 것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의 일이었다. 동경에서 유학을 하고 화장품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력직 연구원과 서울 약대생을 연구원으로 채용한 그는 1959년 프랑스 코티사와 기술제휴를 통해 코티 백분의 국내 생산에 성공하였다. 1962년에는 국내 최초의 남성전용 화장품인 ABC남성전용 크림도 선보였다. 화장을 여성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던 전통적 관념에 반기를 든 행보였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화장품 회사들의 공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대폭 제공한 데서도 찾을 수 있다. 1960년대 태평양화학이 선보인 새 브랜드 아모레는 훈련받은 전문 판매원이 직접 고객들을 찾아가는 ‘방문판매’라는 혁신적인 유통방법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는 당시

횡행하던 모조화장품을 근절하려는 목적에 시작된 것이었으나 당시만 해도 부정적이었던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에도 의의를 둘 수 있다. 당시 여성방문판매원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화장품 전문가’이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인정받았다. 오늘날 뷰티 아티스트나 인플루언서 그 외 다양한 직업군이 화장품·미용산업과 관련된 점을 상기할 때 일자리 창출면에서도 뷰티산업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화장품시장은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일찍 문호를 개방하고, 그만큼 오랜 기간 해외의 화장품들과 기술 경쟁을 벌여왔다. 일제강점기에는 권력을 등에 업은 일본의 화장품 브랜드들이, 한국전쟁 전후로는 미군부대를 통해 유입된 서구의 화장품이 이 땅의 자생적 화장품 브랜드의 생존을 위협하였다. 1983년 정부가 발표한 수입자유화 정책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수입품의 철퇴를 가장 선봉에서 맞은 것 역시 화장품산업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이땅의 화장품산업이 채 뿌리를 내리기도 전 붕괴의 위기로 다가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련이 길고 강할수록 그 뿌리는 깊고 단단히 자리잡는 법, K-드라마로 대변되는 한류열풍이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 무렵 K-뷰티는 K-드라마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시대를 앞선 혁신의 아이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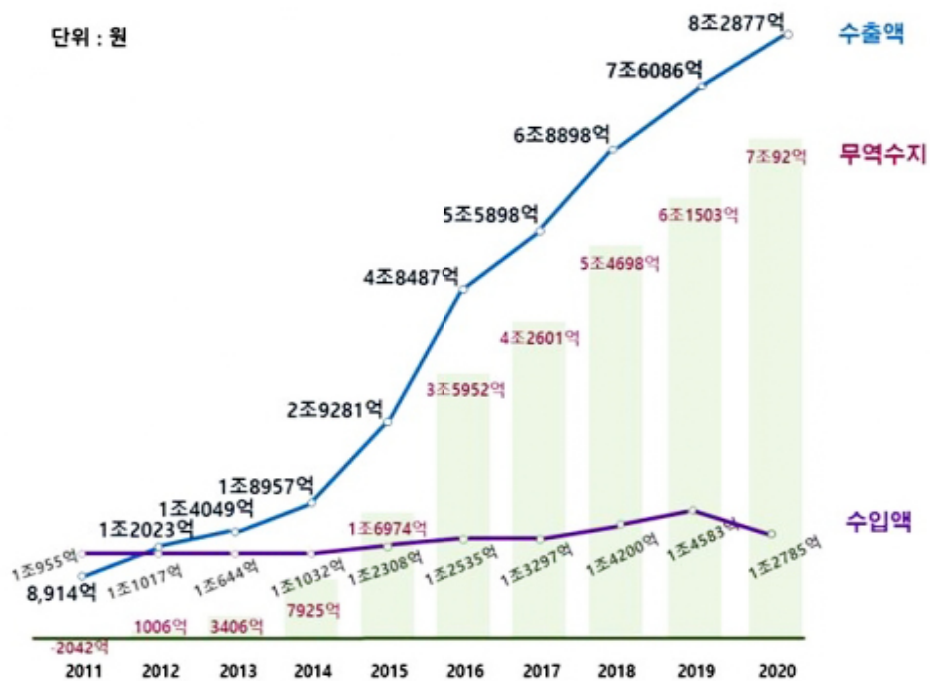
K-드라마의 인기로 시작된 한류열풍은 K-팝, K-컬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열기로 이어졌다. 단순히 한국의 드라마, 음악이 아닌 한국의 문화와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애정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의 눈에 한국인들의 삶과 문화는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을 넘어 ‘배울점이 많은’ 것들로 이해되는 부분이 많다. K-뷰티도 그 중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대한민국은 무역수지 흑자 7조원을 돌파하며 세계 3대 화장품수출강국 중 하나로 부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물론 지금의 K-뷰티 열풍을 단순히 수출물량과 같은 숫자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겠으나, 그만큼 세계 속에서 K-뷰티의 입지가 크고 단단하다는 의미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의 화장품이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분명 K-드라마의 영향임을 부정할 수 없다. 열광하는 배우들의 빛나는 미모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그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심지어 잠깐의 유행으로 끝날 것이라는 내부의 자조적인 시각과 달리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가 음악과 영화, 음식, 라이프 스타일을 아우르는 거대한 문화 충격으로 세계를 뒤흔들면서 대

한국은 'K-문화'라는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가진 하나의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하게 되었고, 한국문화에 대한 신뢰와 찬사는 곧 한국산 제품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현상만으로 세계 3위 화장품수출강국의 성장 배경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8년 현재 한국의 화장품관련 기업의 숫자는 2000년 151개에서 14,738개로 97배가 증가했다. 수출 규모도 꾸준히 증가해 2000년 1억달러 수준이던 수출은 2018년 약 62억달러로 60배 가량 증가했으며, 코로나19가 산업 전반을 강타한 2020년에도 76억 달러의 수출규모를 기록해 전년대비 15.6%의 증가율을 보였다. 규모면에서도 화장품산업은 철강과 반도체, 조선산업의 뒤를 잇는 대한민국 대표 기간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현재 우리나라 산업별 수출 규모는 농수산물식품이 83억 달러, 가전이 72억 달러, 휴대폰이 61억 달러 수준이었다.



▲ 연도별 화장품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한국 화장품의 인기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요 쇼핑 품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코로나 발발 이전까지 화장품은 해외 관광객들이 구입하는 쇼핑목록 1순위로, 전체 64.3%를 차지하였다. 심지어 오로지 화장품 쇼핑만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숫자도 적지 않았으니, 이들이 일거는 명동거리의 로드샵 풍경은 대한민국의 관광 풍속도를 대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세계 3위 화장품수출강국의 저력

한국의 화장품이 이처럼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절대적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인정받게된 요인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뛰어난 기술력, 트렌드를 앞서가는 독창적인 아이디어, 자연 성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연구 등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K-뷰티 열풍을 일시적 유행이나 피상적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는 근거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화장품산업은 국가주도적 기간산업이 아니었음에도 개별 기업의 자생적 노력으로 일찌감치 해외 기업과의 기술제휴와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진행되어왔으며 이를 토대로 기술부문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상태였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가 지금과 같은 공고한 입지를 가지지 못했던 2000년대 초반, 호기심에 사용해본 한국산 화장품이 해외 소비자들의 ‘인생템’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다.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도 해외의 소비자들에게는 외면하기 어려운 매력 요소였다.

당시 해외 소비자들에게 한국산 화장품이 인기를 끌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비비크림, 마스크팩 같은 아이디어 상품에 대한 만족감이다. 비비크림은 피부 잡티와 흠을 뜻하는 Blemish와 치료용 연고를 뜻하는 Balm의 앞글자를 따온 상품명에서도 알 수 있듯 뛰어난 커버력과 스킨케어 효과, 간편한 사용감이 특징으로, 2000년대 초반 국내의 신생 화장품기업이 출시하여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인기를 끌었다. 마스크팩 역시 씻어내거나 닦아낼 필요 없이 얼굴에 붙였다 떼어내는 것만으로 뛰어난 스킨케어 효과를 발휘하는 신개념 팩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후로도 한국의 화장품은 메이크업 효과가 뛰어난 파운데이션과 휴대가 간편한 팩트 제품의 장점을 결합한 쿠션과 같은 아이디어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해나가고 있다.

또 한 가지, 한방의학과 예부터 전해내려온 미용비법을 바탕으로 인삼, 홍삼, 동백꽃을 비롯해 알로에, 달팽이 점액질, 제주 용암 등 다양한 천연 성분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제품에 적용해온 사례는 오늘날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클린 뷰티와 지속가능한 경제의 핵심 솔루션으로 이해되면서 다시금 세계의 주목받고 있다.

문화 콘텐츠로서 K-뷰티의 가치

최근 그룹 BTS를 필두로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은 다양한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K-뷰티 역시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더불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중요한 문화 콘텐츠 중 하나로 손꼽힌다.



▲ 하이브엔터테인먼트 글로벌 아티스트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BTS

‘아름다움’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의 특징을 지목하는 단어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기업철학과 기업가정신, 그리고 대대로 이어져온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관, 미래에 대한 방향성 등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경제적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그 소중한 자산을 싹틔우고 뿌리내려왔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글로벌 기업들의 위협,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해외 각국의 수입 장벽, 소비자들의 까다로워진 눈높이와 새로운 기술 및 성분에 대한 요구 등은 화장품산업이 지속적으로 해결해가야 할 과제다.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뷰티는 겨우 꽃피운 작은 꽃망울 하나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식민시대의 흑독함을 이기고, 전쟁의 참혹함을 견디며 단단하게 뿌리내린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자부심, 그것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관, 세계가 인정하는 아름다운 문화를 소중히 가꾸고 다듬어야 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대한민국이 가진 아름다운 자산의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K-뷰티를 이끌어가는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참고문헌

최은섭·안준희, 화장품 광고와 아름다움의 문화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

신인섭, 광고로 보는 한국화장의 문화사, 김영사, 2002.

김희숙, 한국과 서양의 화장문화사, 청구문화사, 20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년 화장품산업 분석 보고서, 2020.

화장품통계 국가별 수출/수입현황,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2021.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화장품산업의 사회·경제적 가치, 2019.

이진형, 신성장품목 수출동향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2020.5.

K-컬처를 짚어본다

심두보 |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1990년대 후반,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가을동화> 등이 예기치 않게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등지에서 인기를 끌면서 시작된 한류는 2000년대 후반, <커피프린스 1호점>, <꽃보다 남자> 등 도시적 감성의 드라마를 통해 중년여성에게 국한되었던 팬덤을 청년세대로 확장했다. 비슷한 시기에 폭발하기 시작한 케이팝(K-pop)의 인기는 한류가 아시아에서는 대중적 문화메뉴로, 유럽과 아메리카를 포함한 그 외 지역에서는 틈실한 팬덤을 갖춘 하위문화로 자리 잡게 하였다. 또한, 케이팝 아이돌이 활동영역을 넓힘에 따라 한류 팬덤의 수용 양태도 달라졌다. 과거의 한류 팬덤은 지역과 세대 및



좋아하는 장르를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일테면 2000년대 초중반, 아시아 중년여성의 TV 드라마 팬덤(한류 1.0)과 2000년대 후반 이래 10대 청소년으로 확장된 케이팝 팬덤(한류 2.0)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제 해외의 팬들은 자신의 아이돌이 출연한다면 음악 프로그램이건, 드라마건 혹은 예능 프로그램이건 간에 상관없이 해당 콘텐츠를 인터넷의 도움으로 쉽게 찾아보고 즐기며, 이를 통해 알게 된 다른 배우의 드라마와 영화도 검색해 수용한다. 이 상황을 앞에서 거론한 한류 ‘버전’ 분류로 따져본다면 한류 3.0으로 지칭할 수 있으리라. 2010년대 중반 이후 명실공히 한류는 대중문화뿐 아니라, 한국어, 한국학, 전통문화 등 한국문화 전반을 즐기고 탐구하는 초지역·초세대적 현상으로 자리를 잡았다. 어느새 “K-”라는 접두어를 붙여, K-컬처, K-뷰티, K-스포츠 등 다양하게 명명을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한국의 문화, 문물, 소프트파워가 전 지구적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

한류 현상이 지난 20여 년 동안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인정받았던 것은 아니다.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보수적 문화 권력은 한국 드라마를 ‘지나치게 감상적이다,’ ‘불륜과 삼각관계에만 의존한다,’ ‘진부하다,’ ‘저질이다’ 등의 말로 폄하했다. 이들에게 대중문화, 특히 TV 드라마는 취향의 타락인 것이다. 즉, 이들은 TV 드라마가 표방한 ‘일상의 묘사’를 천박한 통속성으로 인식해, ‘교양’으로 교화할 대상으로 바라봤다. 반면에, 진보적 지식인들은 TV 드라마란 현실의 모순을 은폐, 조작하고, 무지한 대중에게 지배 이데올로기를 불어넣는 통치 기제일 뿐이라고 깎아내리던 터였다. 이런 식으로 비판받던 한국 드라마가 국외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보도에 많은 이들이

반신반의했다.

외국에서도 한류 현상이 처음부터 환영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한류(韓流)라는 단어의 조어 과정을 살펴보면 그 맥락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말, 중국 언론이 한국 대중문화의 유입과 인기를 ‘차가운 해류’란 의미의 한류(寒流)에 빗대어 한류(韓流)라 부르기 시작했을 때, 이 조어법에는 한류(韓流)가 한류(寒流)처럼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쳐야 한다는 바람이 담겨있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외래문화가 자국 청소년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했다. 1970년대 후반 이래 점진적으로 문화개방을 한 중국은 미국문화나 일본문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한국문화에 우호적이었으나, 여전히 외래문화란 점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통제의 끈을 놓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중국 정부의 경계심은 정치·군사적인 이슈와 맞물려 2016년 이후 한한령으로 본격화했다.

중국 내에서의 한류 소멸에 대한 바람이 싱가포르나 일본에서는 한류 소멸에 대한 예측으로 전개됐다. 2000년대 초반 이들 국가의 학자와 업계 관계자들은 오랫동안 문화수입국에 머물렀던 한국 문화가 해외에서 인기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으며, 금세 사라질 잠깐의 현상으로 치부했다. 이들은 “한류를 의미하는 ‘Korean Wave’가 말 그대로 ‘물결(wave)’일 뿐이듯이 한류는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 것이다”라는 주장을 통해 한국 사회와 한국문화에 대한 경시와 편견을 드러내곤 했다. 아마도 한류를 아시아 국가 간에 존재했던 ‘문화 위계’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이끌고, 보이밴드 BTS가 상업적 성공뿐 아니라 비평적 인정을 받게 되고, 2020년 제92회 아카데미영화제에서 <기생충>이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을 수상하며, 문화생산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은 더욱 확고해졌다.

언제 종식될지조차 모르는 작금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K-컬처의 인기가 전 세계에서 더욱 높아지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2021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공개된 지 28일 만에 전 세계적으로 16억 5,045만 누적시청 시간을 기록했다. 결국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대 최다 시청(TV쇼와 영화 부문 전체) 콘텐츠 기록뿐 아니라 넷플릭스 순위를 집계하는 83개국 모두에서 시청 가구 수 1위를 달성한 최초의 작품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작년 하반기, 지구 곳곳에는 <오징어게임> 관련 상징물과 공원이 생겼고 <오징어게임>에 소개됐던 게임과 놀이문화를 실연하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의 모습이 연이어 보도된 바 있다. 2021년 10월 12일 미국 ABC 텔레비전의 뉴스프로그램 나이트라인(Nightline)은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복장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기리에 판매 중이고, 언어 학습 앱(app) 듀오링고(Duolingo)의 한국어 신규 이용자가 40% 증가했다고 보도했다(ABC News, 2021). 최근에는 좀비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과 묘하게 오버랩되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지금 우리 학교는>은 지난 1월 28일 공개 후 2월 13일까지 누적 시청 시간 4억 7426만 시간을 기록함으로써, 넷플릭

Hit Netflix Show Squid Game Inspires Peak Interest in Korean Language

12:21 GMT 11.10.2021 (Updated: 12:22 GMT 11.1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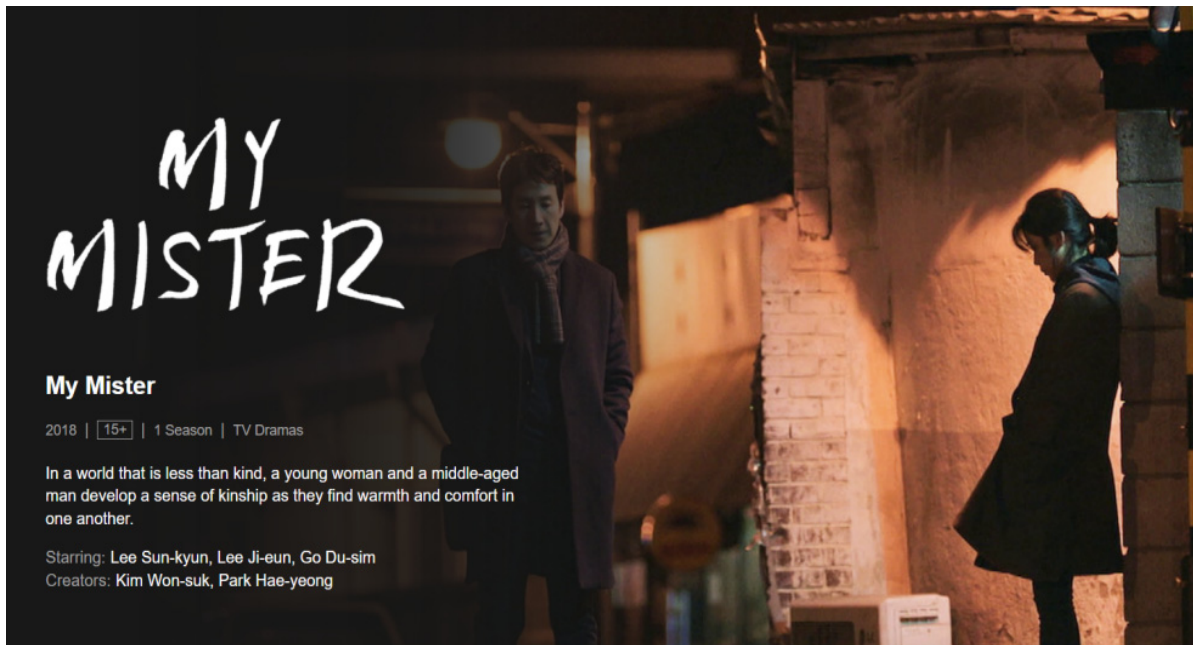
© REUTERS / Kim Hong-Ji

EVERY HALLOWEEN PARTY THIS YEAR :



스의 TV쇼(비영어) 부문 역대 흥행 순위를 집계하는 “첫 28일 기록”에서 곧 <오징어게임>의 뒤를 이어 2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손정빈 2022). 넷플릭스는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성장해온 OTT(Over the top) 혹은 SVOD(subscription video-on-demand)라고 불리는 가입형 비디오 서비스이다. 모바일 기기 이용의 보편화, 그리고 코로나 19에 따른 일상화된 ‘집콕’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과 같은 글로벌 OTT뿐 아니라 지역에 기반한 서비스를 통해 영화, 드라마를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긴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이제 TV의 시대가 저물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OTT(Over the top), 즉 가입형 비디오 서비스가 콘텐츠 시청의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다고 전망한다. 바로 그 넷플릭스가 2016년 무렵, 아시아 시장 진출을 결정한 후 첫번째 결정이 콘텐츠 강국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었다. 발전 가능성이 큰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이미 지역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었던 한국 드라마를 활용한다는 전략이었다. 최근에는 디즈니 플러스도 동남아 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한국 미디어산업에 1조3,200여억 원을 투자한 넷플릭스는 현재 한국 콘텐츠 130여 편을 30여 개 언어의 자막과 20여 개 언어의 더빙을 통해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다. OTT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은 “몰아보기(binge watching)”를 해가며 한국 드라마에 몰입한다. 이제 K-컬처는 과거처럼 중년여성과 10대 청소년 위주의 팬덤에 의존하지 않고, 전 세계 남녀 모든 연령대의 시청자를 아울러 사랑을 받는다. 새로이 유입된 남성 팬들이 이구동성으로 평하는 것은 한국 드라마의 오락적 질과 작품성이다. 소설 <연금술사>로 유명한 브라질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2018년에 제작된 16부작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2020년 10월에 넷플릭스를 통해 보고 난 후 자신의 트위터에, “인간의 조건을 완벽하게 묘사한 작품”인 <나의 아저씨>의 “탁월한 각본, 환상적인 연출, 최고의 연기 ...에 찬사를 보낸다”라고 썼다.



K-컬처가 왜 이렇게 끝게 되었느냐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간 문화근접성과 혼종성 등 다양한 이론을 동원해 설명했으며,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따른 표현의 자유 확대 그리고 유튜브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등을 거론했다. 이 지면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드라마와 가요로 시작했던 작은 불씨가 전통문화와 한국학을 포함해 K-컬처의 거대한 불길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류 팬으로 성장한 세계의 젊은이들은 대학에 입학하며 한국문화와 역사를 진지하게 공부하고자 한다. 점차 전 세계의 많은 대학이 한국문화, 역사, 정치, 경제 등 한국학 연구자를 교수로 채용하고 있으며, 대학원 수준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 잘 알려진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학 한국사) 교수는 민족주의를 포함해 한국사회의 여러 이슈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학자다. 하지만 2019년 4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유럽 한국학대회(AKSE:The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에서 그는 세계 각지 한국학 학자들은 한류 팬을 잠재적 학생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자신도 어쩔 수(?) 없이 한국 대중문화를 강의하게 되었음을 고백한 바 있다.

희망컨대 코로나 시대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시청자 복지와 민주주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드라마를 시청함으로써 수용자는 자신의 삶과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기회를 얻게 된다. 태국의 시청자들은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킹덤>을 시청하며 보다 정의로운 왕정 정치의 모습을 상상한다. 이렇듯 전 지구화 시대 미디어의 매개를 통해 타국의 시청자들이 상징적으로 연결된다. 외국 드라마를 시청하며 이들은 멀리 떨어진 지역의 사람들이 삶의 여러 단계에서 자신이 겪었던 것과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도시화, 산업화, 민주화 및 전 지구화의 도정에서 각 사회가 비슷한 사건을 공유했음을 알고 놀란다. 드라마가 매개한 간접경험을 통해 이들은 자신들과 스크린 속 외국인들, 그리고 그 표상의 지시체인 타국의 사회문화에 친근감을 느끼고 근접성을 상상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상상적 매개의 주역은 할리우드였다. 이제 그 몫을 K-컬처도 담당하기 시작했다. K-컬처에 관한 관심이 ‘국뽕’의 심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초국적 문화교통에 대해 맥락적이고 중층적인 이해와 성찰을 자극하여 그로부터 삶과 사회에 관한 사유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손정빈 (2022). “‘지금 우리 학교는’” 넷플릭스 시청 시간 역대 3위로.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202160939168334>

ABC News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34Ov1H-5xac&t=19s>

한국학 연구와 디지털 인문학

김일환 | 성신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데이터의 전산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인문학 연구에도 전산적인 방법을 적용한 일련의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빅 데이터(Big Data)’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인문학에서도 전산화된, 디지털화된 데이터에 대한 요구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학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법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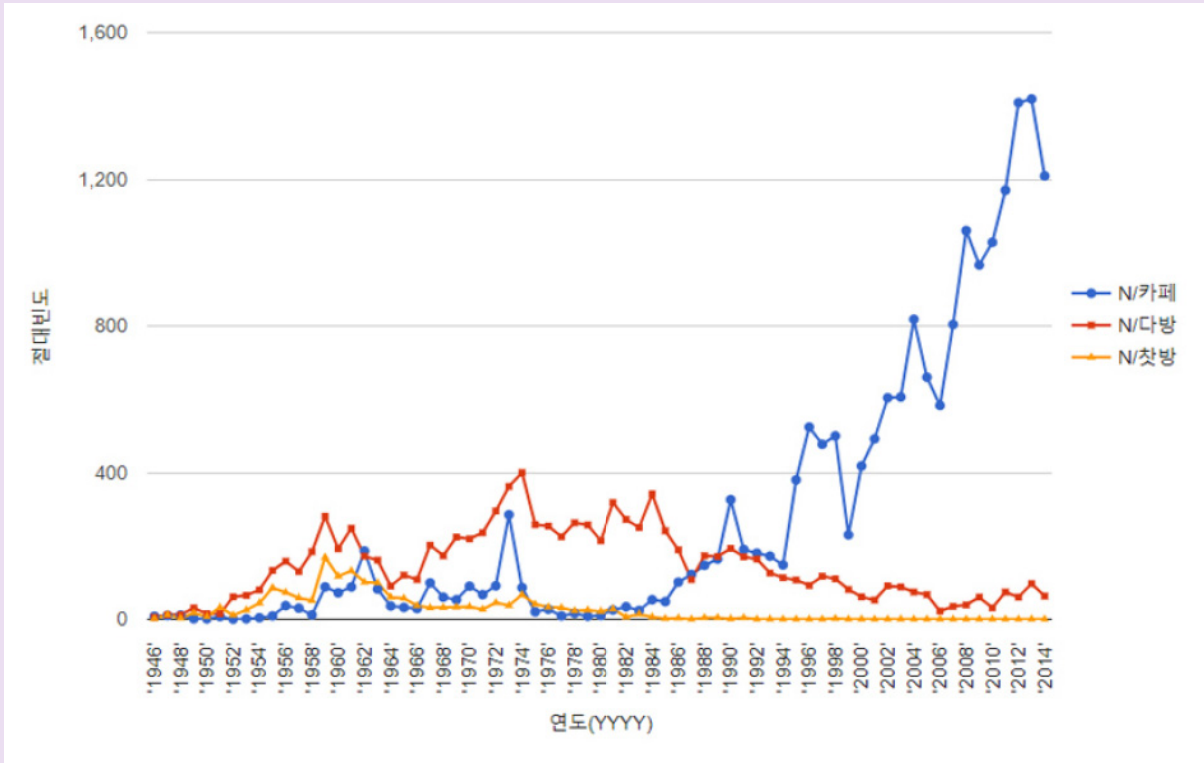
이 글은 대규모의 전산화된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학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소략하게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필자의 관심이 주로 언어 현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본고의 논의가 디지털 인문학과 한국학 연구 전반을 모두 포괄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적어도 중요한 연구방법론상의 거대한 흐름과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대규모의 언어 데이터, 특히 텍스트 데이터를 구축해서 한국학 연구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연구의 초창기에는 주로 원전 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검색하고 서비스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은 검색뿐만 아니라 원전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까지 요구하게 되었다. 즉 단순히 검색 차원을 넘어서 원문 데이터에 대한 가공, 처리, 변환 등이 모두 가능한 차원까지 연구자가 활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약 70년치 동아일보 전체 기사를 전산화하고 이에 대한 분석까지 서비스하고 있는 ‘웹 기반 분석 도구(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카페, 다방, 찻방’의 연도별 사용 빈도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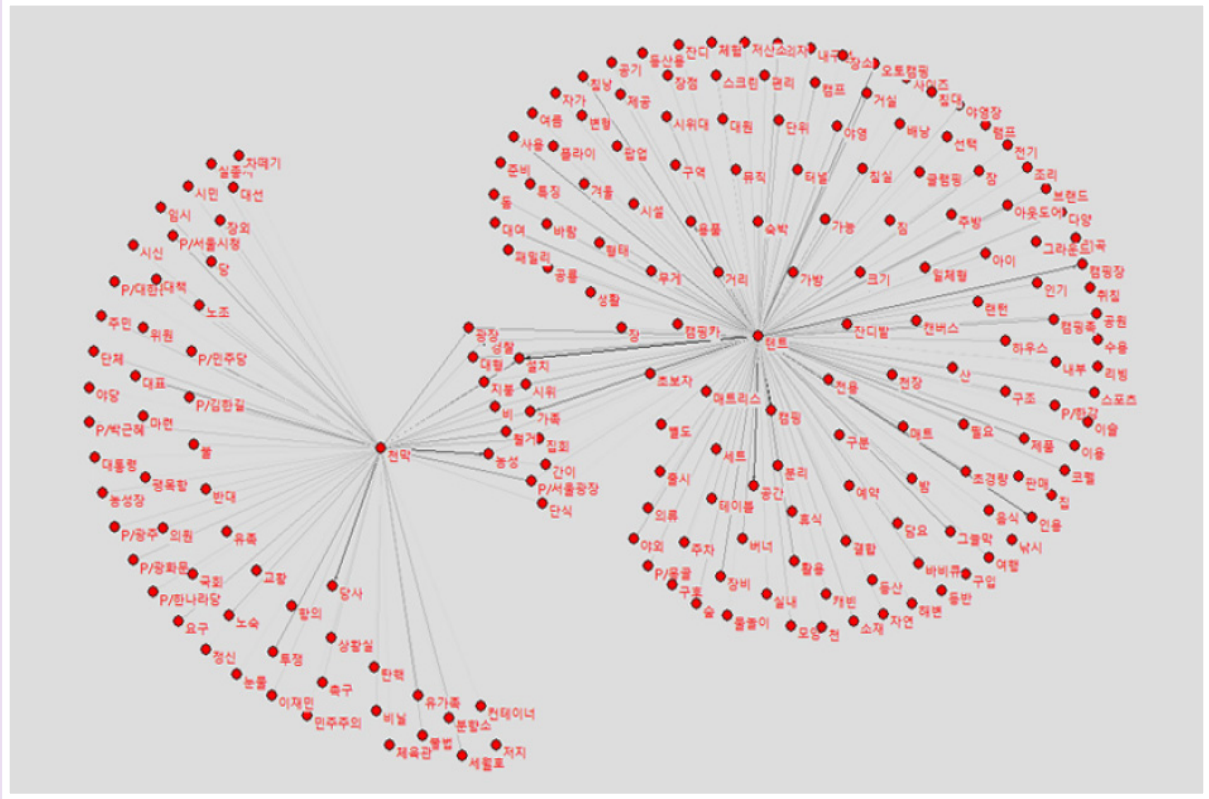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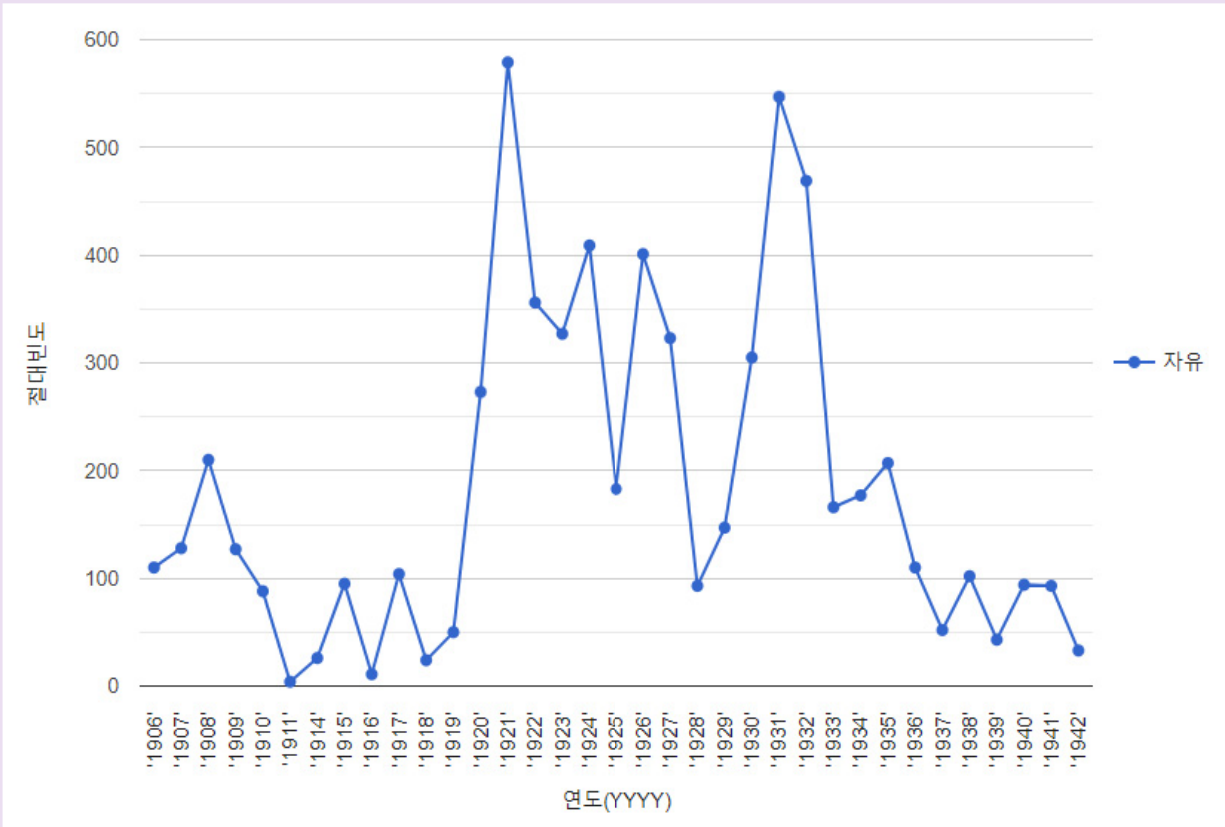
▲ ‘카페, 다방, 차방’의 연도별 사용 빈도

사용자는 위의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해석과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카페’라는 단어를 오래 전부터 사용해 왔다는 점, ‘다방’이 ‘카페’보다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다는 점 등은 표면적인 정보에서 시작하여 카페와 다방의 연관어 분석을 통해 ‘카페’가 1950년대 이전까지는 청소년은 출입할 수 없는 유흥업소였다는 점, ‘다방’이 오히려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세련되고 고상한 공간이었다는 점 등과 같은 심층적인 내용도 포착할 수 있다.

연관어 분석을 하게 되면 유사한 표현에 대한 변별도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음의 네트워크 그림은 ‘천막’과 ‘텐트’의 2000년대 연관어 분포를 보여주는데 이에 따르면 ‘천막’과 ‘텐트’는 단순히 우리말과 외래어라는 차이뿐 아니라 ‘천막’은 주로 시위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텐트’는 취미나 야외활동의 목적으로 쓰인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연관어 분석은 한국학과 관련한 주요 개념의 변별에도 효과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한국학의 주요 개념사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규모의 디지털화된 언어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한림대학교의 한림과학원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개념사 연구는 디지털 연구 방법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근대 문예잡지 25종을 디지털 언어 자료원으로 구축하여 검색 및 분석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음 그림은 근대 문예잡지 25종에 쓰인 ‘자유’의 빈도 변화를 잘 보여준다.



한국학은 언어, 문화, 역사 등을 모두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분야도 매우 포괄적이고 논의도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데이터, 전산화된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하고 이를 텍스트 마이닝의 여러 기법들,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방법들을 적극 도입하여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욱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학 연구에도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 방법이 활발히 적용될 수 있는 인프라가 하루속히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해외 한국학 연구 동향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최지선 | 성신여대 한국학연구소 연구원

현재 한국학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의 성장과 학내 신진 연구자들의 유입과 성장으로 질적, 양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에 해외 한국학 연구의 발전과 현황을 조망하고 한국학 연구의 향후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1900년대 근대 동양학은 유럽 제국주의의 직접 지배를 받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탓에 한국이라는 주권국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학의 자리가 보장되지는 않았다. 여기에는 세계 학술계의 공통어(lingua franca)인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한국인 연구자의 부재가 한몫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의 동양학계에서 한국인 연구자들이 한국어로 작성한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식이 희박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세계 학술계의 일부인 한국학을 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국학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일이었다. 이는 한국인 연구자들의 연구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한국이 국제적으로도 유의미한 연구 대상이 되어야 했고, 한국 연구가 독자적인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여러 국가와 전공의 학자군이 존재해야만 했다. 이렇듯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한반도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는 한국학 발전의 토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한국학(Korean Studies)이라는 말은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국내외에서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한국학이란 통상 한국을 탐구의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지리학이나 물리학처럼 특정한 영역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관련된 언어와 문화와 역사, 정치와 경제, 사회와 지리 등 모든 영역을 인식과 탐구의 대상으로 한다. 한국이라는 지역적·정치적 구분에 기반을 둔 관계로 '지역학'의 하나로 분류되고, 한편으로는 한국에 관한 지식 전반을 다루는 종합적인 학문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 체계로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먼저, 연구를 한국인이 하는지 아니면 외국인이 하는지에 따라 연구 목적과 대상과 내용 등이 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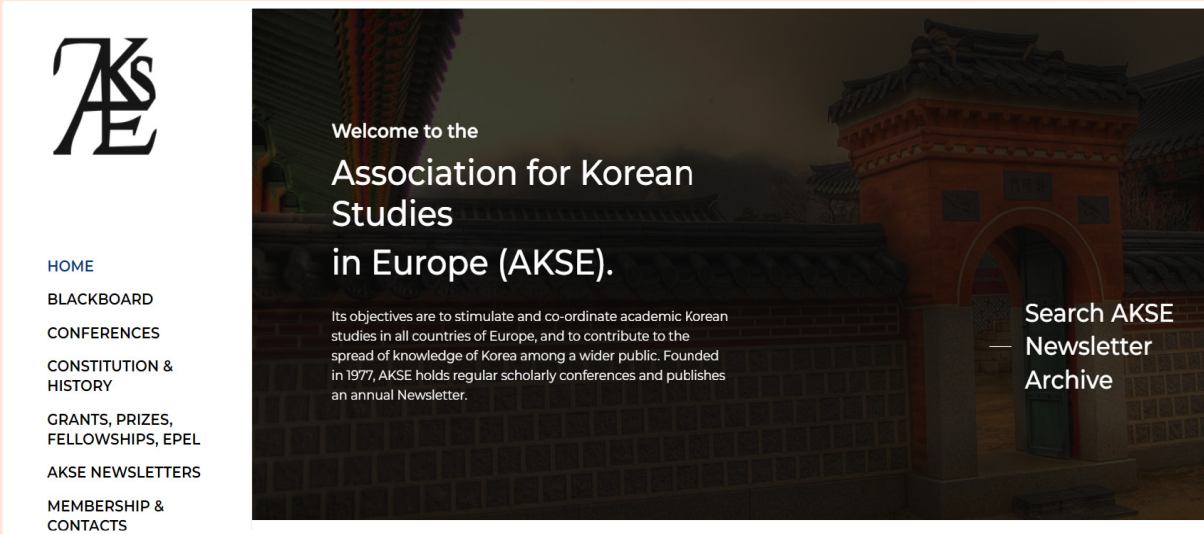
게 달라진다. 한국인에게 한국학은 자기 문화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연구되며, 연구 대상도 한국이라는 근대국가의 범주를 벗어나 한민족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로 넓게 나타난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한국학은 그 나라가 한국과 맺고 있는 관계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목적과 내용이 다르게 구성된다. 때문에 ‘자국학(自國學)으로서의 한국학’과 ‘타국학(他國學)으로서의 한국학’을 각각 ‘국학(國學, National Studies)’과 ‘한국학(韓國學, Korean Studies)’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국학’이라는 명칭은 자민족 중심주의에 기반한 것이어서 국제 사회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또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색채도 짙다. 그런 점에서 ‘국학’이라는 말보다는 ‘한국학’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그러한 한국학 연구는 현재 커다란 전환기에 놓여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학과 구조와 학문 영역의 재편이 구체화되어 인문계열의 학문 체계가 한국어문학, 문화콘텐츠학, 어문학과 같은 이름으로, 학문의 내용과 성격까지 사회적 효용성에 가치를 둘 것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이는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 사회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면서 발전과 적응이란 명분 아래 나타나는 전 세계적 과제이다. 이는 지난 수 십년 간 이룩한 한국학 연구의 업적을 바탕으로 국제화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개념의 한국학을 펼칠 시기에 직면한 것이다.

유럽에서의 한국학 연구 현황

유럽에서의 한국학 연구는 19세기말~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는 동양과 동양문화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 컸다. 당시 제국주의 정책과 기독교 전파를 명분 삼아 외교관, 탐험가, 선교사, 학자 등이 한국을 다녀가면서 한국학 자료를 모으고 소개하는 글을 발표하거나 자국어로 한국 자료를 번역하는 정도에서 한국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졌다. 이때 서양이 한국문화 이해를 최우선적 과제로 삼고 역사, 문학, 철학, 종교 등에 관심을 쏟게 된 전통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이때 한국학 연구는 동양문화 이해라는 측면에서 한국문화를 연구하고, 그 한국문화 속에서 고전 문학을 들여다보려는 전통이 강했다. 그리고 서유럽과 중·동유럽 국가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서유럽은 남한 경제와 정치, 문화 연구를, 중·동유럽은 북한과의 긴밀한 교류 관계 하에 북한 관련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1977년에 서유럽 내 한국학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유럽한국학회(AKSE, The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가 당시 유럽 내 남한을 위주로 한 한국학 연구의 거점 역할을 자처하였다. 오늘날 유럽 내 한국학 연구자들의 연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학회로 성장한 유럽한국학회(AKSE)는 1970년대 후반부터 프랑스와 러시아, 네덜란드(라이덴 대학), 핀란드(헬싱키 대학), 영국(런던 대학), 독일(보훔 대학) 등의 연구자들이 학회를 만든 이후, 지금까지 유럽 내 한국학 연구를 선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리 제7대학의 이옥



▲ 「The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홈페이지

교수와 런던대의 스킨랜드 교수가 중심이 되어 개별 연구를 지양하고 종합적이면서 집단적 연구를 지향함으로써 단기간에 한국학의 거점으로 급성장했다. 체코와 폴란드에서도 한 차례 열린 적이 있지만, 대체로 서유럽 국가 주도로 운영돼 오고 있다.(이민희, 「유럽에서의 한국학 연구 동향 및 방향」, 『어문학 134』, 2016.12)

그런데 1989년 동구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민주국가로 탈바꿈하면서 한국학의 대상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지게 되었다.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불가리아·헝가리·루마니아 등 서유럽 외에 중·동유럽 국가까지 남한과 국교를 맺게 됨에 따라 유럽 내 한국학 연구는 통일된 상대, 곧 남한을 위주로 한 연구로 바뀌게 된 것이다. 2000년을 전후해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한류와 한국어 교육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2010년 이후로는 해외 한국어교육과 해외 한국학 연구에 있어 양적·질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벗어난 후 중·동유럽 국가 출신의 젊은 연구자들이 한국(남한)에 가서 공부하고 귀국하여 자리를 잡고, 일반인들 역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한국학의 성격과 범위도 큰 변동을 일으킨 것이다.

2003년에 창립한 중·동유럽한국학회(CEESOK, The Central and East European Society of Koreanology)는 중유럽과 동유럽 국가에서 활동하는 한국학 연구자들이 모여 이 지역 한국학 발전을 도모코자 결성되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급성장하고 있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유럽 내 한국학 연구 경향과 방향, 그 내용을 확인하려면 최소한 두 학회를 모두 살펴야 할 것이다. AKSE와 CEESOK에서 발표되는 논문과 학술대회 주제를 통해 유럽 내 한국학 연구의 성격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The Central and East European Society of Koreanology」 홈페이지

미주에서의 한국학 연구 현황

미국에서의 한국학 연구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1970년대 이래 발전을 거듭하면서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1882년 조선과 미국의 제물포조약으로 인하여 선교사나 외교관이 조선(Korea)에 대한 책과 논문을 쓰기 시작했으나, 일제강점기(1910~1945)에는 미국에서 출간된 한국에 대한 저서가 열 권 정도로 미미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워싱턴대학 등에서 한국어 어학 수업이 개설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이들 대학을 중심으로 우수한 연구자들이 배출되면서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있는 중국학이나 일본학 연구와 함께 동아시아학 분야의 한축을 이루어가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학 연구가 본격화된 계기는 포드재단이 한국학 지원을 위하여 콜롬비아, 하와이, 하버드, 프린스턴, 및 워싱턴대학에 각각 10만 달러를 제공하고, 6만 5천 달러의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은 The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SSRC)이 미국 내에서 한국학을 홍보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학 연구자들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활성화된다.(권준희, 「알리기 위한 지역학, 알고 싶은 지역학」, 『역사비평』, 2021.11)

1990년에서 2000년대를 거치며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신진 연구자들은 연구 방법과 연구 주제에 대한 시각과 접근에 있어 기존의 세대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진 연구자들은 종종 민족, 국가 혹은 계급에 근거한 기존의 역사적 가설에 도전하고 거대 담론을 거부하는가 하면 역사적 사건의 이면에 존재하는 사상과 인식에 대한 탐구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학 연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확산과 학제 간 연구, 장르를 가로지르는 문화 연구의 유행은 과거 세대에 볼 수 없었던 학문적 다양성을 허용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인문학 연구에 문화 연구와 접근 방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해외 한국학 연구는 과거 정치와 경제구조, 인물과 사전에 집중하던 과거의 경향과 달리 종교, 문화적 실천, 금융적 관행, 교육, 의학, 사상과 이데올로기, 여성과 출산 일상 등 다양한 연구 분야로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과거 지배 이데올로기 연구, 이분법적인 반공논리와 근대화 이론 등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보통 사람들의 문화적 실천과 일상생활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고 삶 속에서 내면화된 가치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

해외 한국학계는 그 연구자의 수나 연구 성과의 양에 있어서는 국내 학계와 비교될 순 없겠지만, 동일 주제에 대해서도 국내 학계와는 다른 또는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해외 한국학계의 주요 연구 성과들 중 상당수도 영어로 출판되기 때문에 해외 한국학계의 연구 업적들이 세계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내의 각 연구자들이 직접 해외학계의 연구 성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학계의 연구 성과를 국내학계에 소개하고, 이 성과들에 대한 체계적 비평을 통해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학계 간의 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학술 활동과 출판 사업 역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로 된 대표적인 한국학 논집은 국내에 『Acta Koreana』(계명대학교)와 『The Review of Korean Studies』(한국학중앙연구원)이다. 영어에 익숙해져 해외 한국학의 소개와 국내 한국학 연구의 세계화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한국학이 중국학이나 일본학처럼 견고한 학문 체계, 자원, 그리고 능력 있는 학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다. 학계 출판물들의 질적·양적인 면, 연구 및 강의자료들의 이용 가능성, 관련 종사자들의 학문적 능력을 고려해 볼 때 한국학은 여전히 중국학이나 일본학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논문과 서평의 양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아직은 엄청나게 부족하다. 그렇지만 희망적인 것은 최근 들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향상되는 것이 수치상으로 확인되는 점이다. 더구나 모든 분야에서 차세대들의 등장과 활동이 두드러지는 사실 역시 고무적이다. 미국에서 한국학을 이끌어갈 세대는 주로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인 2세대들이다. 초기 이민자나, 선교사로 훈련받은 사람들인 1세대 학자와, 평화봉사단이나 군인 출신의 2세대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들 한국계 미국인들의 대다수가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



으며 두 문화에 다 익숙한 사람들로서 보다 쉽게 한국과 서양세계 사이를 넘나들 수 있다.(김중순, 「해외 한국학의 동향」, 『국학연구 3』, 한국국학진흥원, 2003,12) 앞으로 그들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확장시키고 공고히 할 것이며 그 연구의 깊이도 더욱 뚜렷이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한국학에 관한 기본 연구자료들을 수집, 이용 가능하게 하고 과거의 학문적 결실을 종합하는데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에서 이루어진 성과들을 국내에 소개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Jisun Choi

Currently, Korean studies have achiev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evelopment through the growth of Korea's international status and the influx and growth of emerging researchers in the school. Therefor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growth of researchers within Korean studies by looking at the development and current status of overseas Korean studies research. I wanted to look at the trends in Korean studie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It was confirmed that Korean studies in Europe are actively conducted not only in Western Europe but also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it can be seen that the United States is currently the base of Korean studies.

Overseas Korean academia cannot be compared to domestic academia in terms of the number of researchers or the amount of research results, but the same subject will also have a lot of implications because it approaches from different or diverse perspectives from domestic academia. Since many of the major research achievements of overseas Korean academia are published in English, the influence of research achievements of overseas Korean academia on the global academic world cannot be ignored. Therefore, it is most important for each researcher in Korea to be interested in the research results of overseas academia, while academic activities and publishing projects that can promote communication between academia by introducing them to domestic academia through systematic criticism.

한시 러브레터, 이행과 박은의 우정

강혜선 | 성신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옛 문인들은 편지를 두고 ‘마음속 정회(情懷)를 털어 놓아 만남을 대신하는 것’이라 하였다. 편지를 보낼 때 대개 두 벌을 썼는데, 하나는 상대에게 보내고 또 하나는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하였다. 또 편지에 서린 상대의 음성은 물론이거니와 종이에 남은 필적을 고스란히 소장하려고 편지만을 따로 묶어 작은 책자를 만들기도 하였다. 편지도 그냥 편지가 아니라 서정시로 편지를 대신하던 시대가 있었다. 몇 장이나 길고 긴 사



연을 곡진하게 풀어내는 편지도 있지만, 짧은 편지에 서정적인 사연과 여운을 전하는 편지도 있다. 그런데 단 몇 구절의 한시로 산문 편지가 넘볼 수 없는 정경을 펼쳐 놓는 예가 있다. 그런 한시를 ‘편지 시’라 부르겠다. 여기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두 시인이 남긴 편지 시를 통해 특별한 우정을 만나보기로 하자.

밤으로 낮을 이어 술에 취해 놀아 보세

4월 초파일은 불자가 아니어도 등불을 보러 산사에 가고 싶다. 화려한 도시의 조명과 달리 짙은 어둠 속에 은은하면서도 화사하게 불 밝힌 등불은 매력적인 풍경이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초파일이면 누구나 등불 구경을 나선다. 여기 한 시인이 벗에게 등불 구경가자고 청하는 편지 시가 있다. 시를 보낸 이는 조선 중기의 이름난 시인인 이행(李荇, 1478-1534)이요, 시를 받은 이는 후세에 소인배로 길이 기억되는 남곤(南袞, 1471-1527)이다.

八日觀燈約	초파일 등불 구경하기로 약속한 날
南山半月時	남산에 반달이 뜰 그때지.
告休吾自暇	휴가라 나는 절로 한가하니
卜夜子能期	밤 놀이를 그대는 약속할 수 있겠는지?
崑帶雲栖迹	바위는 구름 깃든 자취 띠었고
松殘鶴踏枝	솔은 학이 밟은 가지 시들었네. 청학동에서 놀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였다.
相逢須酩酊	서로 만나면 흥선 술에 취해야지
後乘載鷗夷	뒤 수레에 술 부대를 싣고 노세.

남산에 반달이 뜨는 초파일 날 등불 구경 함께하기로 약속하자는 내용의 시이다. 밤으로 낮을 이어 밤새도록 어울려 술에 취하고 등불에 취해 놀아 보자고 하였다. 이어지는 다음의 시를 보면 이즈음 남곤의 사정을 짐작해 볼 수 있다.

平生南萬里	평생의 친구 남만리를
不見二經旬	못 본 지도 이십 일이나 지났구려.
眠食今何似	침식은 요즈음 어떠하신가?
風流老自新	풍류는 늙어서 절로 새롭다네.
短轅頻晝駕	작은 수레를 낮에 자주 타고 와
良藥要時陳	약이 될 좋은 말을 때로 해야지.
莫惜來同醉	술 마시러 오길 아까워 마오.
吾儕亦故人	우리들은 역시 오랜 친구이니.

- <사화(남곤의 자)에게 주어 등불 구경을 약속하다(贈士華約觀燈)> (『용재집(容齋集)』)

이행은 시에서 남곤을 남만리라 부르는데, 거기에는 재미있는 사연이 있다. 남곤의 집은 서울 삼청동(三清洞) 깊은 곳에 있었다. 앞에는 산골 물이 흐르고 뒤에는 큰 바위가 있었다. 벗 박은(朴聞, 1479-1504)이 집주인 남곤을 놀리느라 그 시냇물을 ‘만 리 밖 개울물’이라는 뜻의 만리뢰(萬里瀨)라 하고, 바위를 ‘크게 숨어 있는 바위’라는 뜻의 대은암(大隱巖)이라 이름 붙였다. 남곤이 벼슬하느라고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므로, 문 앞에 있는 시내도 만 리 밖에 있는 것처럼 멀고, 집 뒤에 있는 바위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조정의 일이 바쁘더라도 초파일에는 남산에 올라 등불 구경도 하고 술도 마시고 흥금도 털어놓고 해야 하지 않겠냐며 벗 남곤에게 청하였다.

이 시를 받은 남곤은 이행과 함께 과연 남산에 올라 등불 구경을 했을까? 만약 그랬다면 그날의 풍류 역시 이행의 시로 남았을 터인데, 시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남곤은 여

전히 바빴던가 보다. 벗과의 약속을 어긴 남곤이 훗날 1519년 심정(沈貞) 등과 함께 기묘사화를 일으켜 조광조(趙光祖), 김정(金淨) 등 신진사림파를 숙청한 야화는 널리 알려져 있다. 남곤과 심정 등이 희빈 홍씨를 이용해 “온 나라의 인심이 모두 조광조에게 돌아갔다.”고 왕에게 밤낮으로 고하여 왕의 마음을 흔들고, 또 궁중의 나무 앞에 꿀로 ‘주초위왕(走肖爲王)’ - 走와 肖는 조(趙)의 파자(破字) - 이라고 써서 벌레가 갉아먹게 한 뒤, 그 문자의 흔적을 왕에게 보여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는 이야기 말이다. 이리하여 남곤은 천하의 소인배로 역사에 길이 그 이름을 전하게 되었지만, 그도 젊어서는 시인이었다.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두 시인 박은과 이행이 바로 남곤의 절친한 시우(詩友)였으며, 허균의 『국조시산(國朝詩刪)』에도 남곤이 젊은 날 지은 한시 여러 수가 올라 있을 정도다. 친구를 멀리하고 시를 멀리하면서 점차 권력의 이면이기도 한 권모술수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 한 인물의 여정을 미리 내다볼 수 있게 한 시가 바로 이행의 등불 구경을 약속하는 시이다.



▲ 박은의 시문집 『음취현유고』



▲ 이행의 「중열이 국화 화분을 보내 주어서」 원문

벗이 보내온 국화 화분

가을이 찾아온 것을 무엇으로 아는가? 소담스러운 국화꽃 화분이라도 보면 ‘아 가을이구나’ 싶다. 은일자(隱逸者)의 꽃 국화는 예로부터 문인들이 몹시 사랑한 꽃이다. 집에 국화꽃이 피면 벗을 부르고, 잘 가꾼 국화 화분을 벗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박은이 시와 함께 국화 화분을 벗에게 보내자 이행은 다음과 같이 답장하였다.

病眼偏多忌	병든 눈 유독 꺼리는 게 많으니
愁腸忍自煎	시름겨운 창자 차마 스스로 끓이라?
寒花故人意	이 차가운 꽃은 친구의 뜻이라
書札一時傳	서찰도 함께 넣어 보내었구나.
祇可供怡悅	단지 구경하고 즐기면 그만이니
那堪問歲年	흐르는 세월 어찌 물을 수 있으랴?
能來三徑主	이 삼경(三徑)의 주인을 오게 하였으니
把酒政陶然	술잔을 잡으매 흥이 정녕 도도해라.

- <중열(박은의 자)이 국화 화분을 보내 주어서(仲說以盆菊見遺)>, 『용재집』 권2

이즈음 이행은 눈병이 나서 술을 끊고 있었다. 국화꽃이 한창인 계절에 벗 박은이 국화 꽃 화분에 편지를 엮어 보내왔다. 시에 보이는 ‘차가운 꽃(寒花)’과 ‘삼경(三徑)의 주인’이 바로 국화를 이른다. 벗이 보낸 국화꽃을 감상하고 있으니 눈병도 시름도 사라지고, 마침내 흘러가는 세월의 아쉬움도 사라지는 듯했다. 눈병 때문에 끊은 술이건만, 국화를 보니 술잔을 다시 잡지 않을 수 없었다. 도연명(陶淵明)이 “동쪽 울 밑에서 국화를 따다가 그 옥이 남산을 바라보네(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라 읊은 이래 국화는 으레 술을 부르는 꽃이었으니 말이다. 가을 어느 날 벗에게 국화 화분을 보내는 박은, 여기에 국화꽃 향기와 술 향기가 어우러진 시를 써서 답례하는 이행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한편, 이행이 박은에게 국화를 보내자 박은이 답시를 보낸 사연도 있다. 박은은 편지 대신 답시의 제목에 그 사연을 전하였다.

10월 4일에 택지(擇之, 이행의 자)와 술을 가지고 인로(仁老, 김천령의 자)를 찾아가기로 약속하였는데 택지가 홀연 병으로 가지 못하겠다고 하여 약속이 무산되고 말았다. 그래서 홀로 앉았노라니 마음에 감회가 이는 터에 종남산(終南山, 남산)의 벗님이 뜻하지 않게 국화를 보내왔다. 국화꽃을 보며 스스로 마음을 달래고 있자니 아내가 작은 쇠술을 가져와 술을 데워서 한편으로는 잔에 붓고 한편으로는 술잔을 권하였다. 이에 몇 잔을 헤아리지 않고 술을 마셔 취기가 자못 올랐는데 밤은 벌써 2경이 되었다. 종지와 붓을 찾아 몇 구절 시를 써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 택지에게 부쳐 병중에 한번 웃음을 짓게 한다. 취중에 쓴 글씨라 소위 답타풍기(沓地風氣, 글씨가 늘어져 힘이 없는 것)가 자못 있다. 마지막 구절은 애오라지 장난삼아 말한 것일 뿐이다.

병으로 술자리 약속을 어긴 이행이 미안한 마음에 박은에게 국화꽃을 보냈다. 병중의 벗이 보낸 국화꽃을 가만히 감상하고 있는데, 때마침 아내가 조출한 술상을 차려 와 술을 직접 데워 권한다. 아내와 술잔을 몇 잔 돌리고 나자 따뜻한 취기가 올라 흥이 도도한데, 이 꽃을 보낸 벗은 찬 이불 속에 병으로 누워 술도 마시지 못하려니 해서 시를 써서 보낸다고 하였다.

黃菊花來撥懷抱 노란 국화꽃을 보내와서 회포를 달래 주건만
 靑雲人遠廢追尋 청운의 벼슬에 사람은 멀어 만날 수가 없네.
 風從木葉蕭蕭過 바람은 나뭇잎에 싸아 싸아 불며 지나가고
 酒許山妻淺淺斟 술은 수수한 아내더러 조금씩 잔에 붓게 한다.
 使有兩螯吾易足 만약 두 마리 게(최고의 안주를 이름)만 있으면 나는 쉬 만족하니
 誰將一事更相侵 누가 한 가지 일론들 나를 귀찮게 하리오?
 知君擁被寒如鐵 알겠노라, 그대 쇠처럼 차가운 이불 두르고서
 夢不能成只獨吟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홀로 시를 읊으리란 것을.

(『읍취현유고(挹翠軒遺稿)』 권3)

술에 취해 장난삼아 쓴 시라 했지만, 참으로 다정다감한 박은의 모습이 눈에 선한 시이다. 친구가 보내 준 노란 국화꽃을 수수한 아내 - 원시에서는 산처(山妻)라 하였다 - 가 따라주는 술과 함께 밤늦도록 즐기는 다정한 모습을 시에 담아 벗에게 보냈으니, 아마도 이 시를 받은 이행은 병석에 누워서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며 노란 국화꽃처럼 은은한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

국화꽃 사이에 꽃아놓은 벗의 시

누군가를 찾아갔는데 부재중이어서 작은 쪽지 한 장 남기고 온 일이 있는가? 또 누가 날 찾아왔다가 남기고 간 쪽지를 발견하고 미소 지은 일이 있는가?

어느 가을날 박은이 우암(寓庵) 홍언충(洪彦忠)이란 벗과 함께 술을 마시고 밤이 깊어서야 집에 돌아오니 이행이 자신의 남산 집 읍취현(挹翠軒)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박은이 너무 취해 있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행은 홀로 노란 국화와 푸른 대나무 사이를 거닐며 박은이 깨기를 기다렸다. 결국, 이행은 시를 지어 국화꽃 사이에 꽃아놓고 새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들린 뒤에야 떠났다. 이튿날 밤이 되어서야 술인 갠 박은은 국화꽃 사이에서 이행의 시를 발견하고는 홀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이행의 시에 차운하여 미안한 마음을 전하였다. 이러한 사연을 그대로 박은은 시의 제목으로 삼고, 다음의 시 세 수를 이행에게 보내었다.

今宵聊得醒 오늘 밤이 되어서야 술이 깬는데
 淸月滿空軒 맑은 달빛만 빈 마루에 가득하군.
 何以達之子 어떻게 하면 그대를 만나서
 胸懷更細論 가슴속 회포를 다시 가만히 얘기할까?

 菊花渾被月 국화는 온통 달빛에 휩싸여

清絶自無邪
終夜不能寐
解添詩課多

청절한 모습 절로 사특함이 없구나.
밤새도록 그대 잠을 못 이루고서
시 지을 일 많게 한 줄 알았구려.

心從醒後皎
愁對此君無
今夜知清味
還須戒酒徒

마음이 술 깬 뒤에 밝아졌나니
시름겹게 차군(대나무를 이름)을 대하지나 않으신지?
오늘 밤에는 맑은 맛을 알 것이니
도리어 술 끊은 사람이 와야 하리라.

(『음취현유고』 제2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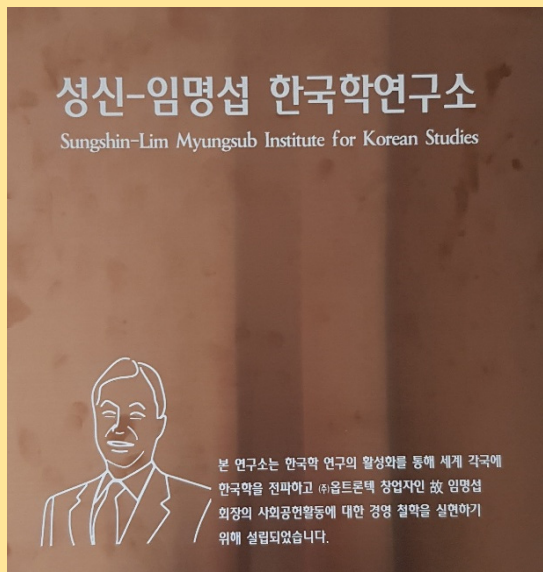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집 뜰에서 오랫동안 서성대다 활짝 핀 국화꽃 사이에 살며시 시를 꽃아두고 떠난 이행, 또, 하루가 지나서야 술이 깨서 벗이 남긴 시를 찾아 읽고는 전날 밤 못다 나눈 회포를 오늘 밤 다시 풀자며 벗을 부르는 편지 시를 쓰고 있는 박은, 이 두 사람이 주고받는 아름다운 정경이 국화꽃 향기만큼 그윽하게 전해져 온다.



▲ 홍낙취, 「국화와 나비」, 1751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연구소 설립 취지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는 성신여대를 기반으로 한국학 연구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20년 11월 성신여대와 (주)옵트론텍이 기금을 출연하여 창업자 고 임명섭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학에 관심을 갖는 국내외의 인재들에게 유무상의 지원을 하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듯이, 이제는 반대로 우리나라를 선망하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1)국내외 한국학 연구자 초빙과 관련된 공간지원 및 연구자 관리 등과 관련된 지원, (2)국내외 한국학 연구자와 성신여대의 공동연구, 연구발표대회, 학술지 발간 등의 지원, (3)국내외 교류대학의 한국학 연구자 연구비 지원, (4)성신여대의 한국학 관련 해외 연구 활동 지원, (5)기타 한국학 연구를 통해 성신여대의 국제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활동 지원이다.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는, 옵트론텍이 글로벌 광학전문 강소기업이라는 비전을 가진 것처럼, 앞으로 작지만 강한 콘텐츠로 세계 여러 나라에 한국의 참모습을 알리고, 한국어를 통해 꿈을 실현하는 글로벌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는 연구소가 되고자 한다.



▲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 현판



▲ (주)옵트론텍 창업자
고(故) 임명섭 회장

『국민소학독본』(1895), 최초의 근대 교과서



▲ 국민소학독본

『국민소학독본』은 1895년 7월에 학부(學部)에서 간행된 최초의 근대 교과서이다. 갑오 개혁 이후 분출되기 시작한 민족주의의 흐름 속에서 출간되어 『국민소학독본』 곳곳에는 민족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깃들여 있다. 「대조선국」에서는, 우리 대조선은 아시아의 한 왕국이고, 토지는 비옥하고 물산이 풍족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세계 만국과 수호 통상을 맺어 부강을 다투고 있다는 것이 언급된다. 「을지문덕」에서는 을지문덕이 작은 나라의 장수에 지나지 않으나 뛰어난 지혜와 용맹으로 중국의 백만 대군을 물리쳤다는 사실이 언급된다. 나라의 강약은 그 대소에 있지 않고 그 나라 사람의 마음과 기(氣)에 있다. 그런데 지금은 쇠잔한 청국도 이기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탄식한다. 민족주의적 자각이 이루어지면서 중국 중심의 화이관이 부정되고 조선에 대한 주체적 자각이 이루어진 것이다. 『국민소학독본』에는 또한 근대 지식으로 무장한 실용적 인간이 강조된다. 「식물 변화」 「시계」 「원소」 등은 사물의 원리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서 근대 지식을 전하고자 하며, 「광지식」 「상사 급 교역」 「합중국 광업」 「지식 이야기」 등에서는 그것을 실생활에 응용할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이런 주장의 한편에는 유교적 가치와 덕목이 언급된다. ‘학업을 닦고 익힐 뿐 아니라 평상시에 부모와 교사와 윗사람의 교훈을 좇아 언행을 바르게 해야 한다.’ ‘우리 대군주 폐하께서 대성인의 도덕으로 대성인의 왕통을 계승하시니 우리들은 대성인의 인민이고, 그래서 애국심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 이는 당대 정부가 유교적 가치를 견지하면서 문명개화를 이루겠다는 중도적 시각을 갖고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성신여자대학교 국제화 및 교류사업

이형민 | 성신여대 국제대외협력처장

성신여자대학교는 재학생들의 글로벌 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제적인 명망과 실력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많은 해외 기관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 발표된 QS(Quacquarelli Symonds) 세계대학평가에서 성신여자대학교는 아시아 지역 216위, 국내 여자대학 2위, 국내 대학 29위를 차지했다. QS 세계대학평가는 학계 평판, 산업계 평판, 교원 대 학생 비율, 국제 연구 협력, 논문 출판 수, 논문 당 피인용 수 등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산정하기 위한 11개의 세부지표들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성신여자대학교가 이번에 차지한 216위는 아시아 지역에 산재해 있는 1만 6,000여 개 대학들 가운데 상위 1.54%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그만큼 성신여자대학교에서 노력해 온 국제적 교육과 연구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공인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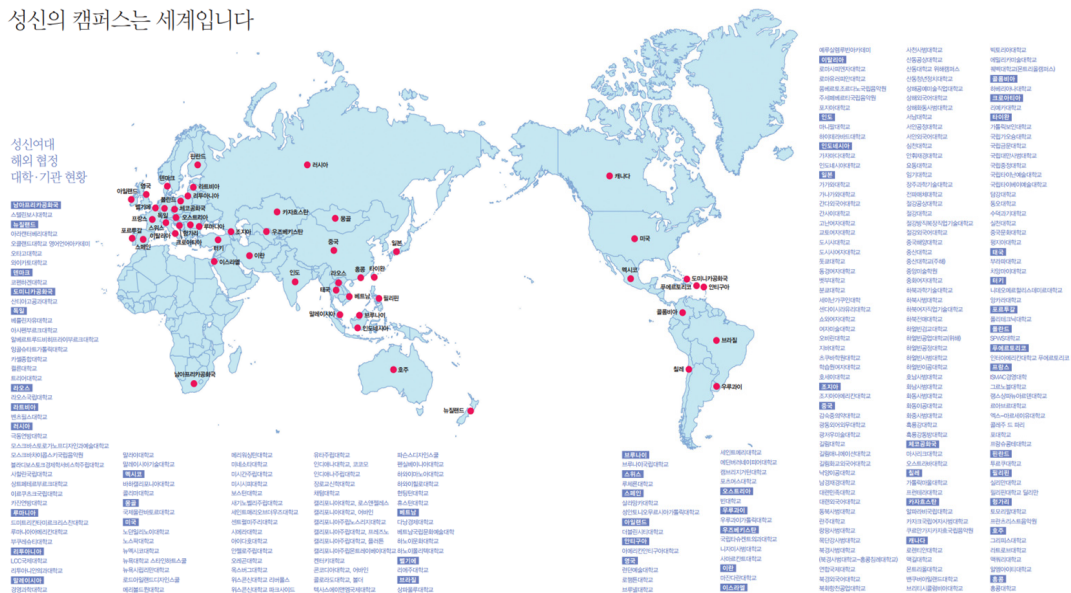
성신여자대학교는 현재 세계 52개국 262개의 대학 및 기관과 공식적인 교류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한민국 외교부와 교육부의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에 발 맞춰 신남방, 신북방, 북·동유럽,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교류 강화에 힘써왔다. 그 결과, 브루나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조지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우루과이, 콜롬비아 등에 소재한 대학 및 기관과의 교류를 새롭게 체결함으로써 교류 국가 및 사업의 다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21년 12월에는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2022~2023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GKS)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 국내 대학들 가운데 40개의 대학만이 선정된 사업으로 향후 2년 간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들 가운데 선발된 우수 학생들은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정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2년 1월에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2022~2033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시행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향후 2년간 성신여자대학교는 'K-뷰티로 완성하는 퍼스널 스타일링'이라는 주제로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신여자대학교와 교류를 맺고 있는 일본 대학들에서 선발된 20명의 학생들이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하게 된다.

성신여자대학교는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를 통해 해외에서의 한국어 보급 및 한국학 연구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는 현재 몽골에 소재한 국제울란바토르대학, 몽골국립대학, 중국에 소재한 절강외국어대학, 그리고 베트남에 소재한 다낭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한국학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비단 세계 속에서 한국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애적인 정신을 기반으로 대학의 사회공헌 책무를 다하기 위함이다. 성신여자대학교의 캠퍼스는 오늘도 전 세계로 확장 중이다.

성신의 캠퍼스는 세계입니다



▲ 성신여대 국제화 및 교류현황

Sungshin's incoming programs

INCOMING PROGRAMS

EXCHANGE / VISITING STUDENTS

Period of Study : One semester or a year

- Full academic year: March ~ December / September ~ June
- Spring semester: March ~ June(15 weeks)
- Fall Semester: September ~ December(15 weeks)

Qualification

Any student (male/female) who meet the qualifications listed below can apply for Exchange / Visiting student Program

- Nomination letter by Applicant's Home University
- Undergraduate students must have completed at least two semesters (Graduate students must have completed at least one semester) at their home university
- Language Proficiency in either Korean or English Language (Submission of Official scores is not mandatory) * Courses that can be taken are subject to change depends on the Language Proficiency(Above TOPIK Level 3 or TOEFL iBT 71 Recommended)



Nomination & Application Deadline

- Nomination(via university offices) : By November 1 for the Spring semester and May 1 for the Fall semester
- Application (via online): By November 30 for the Spring semester and May 31 for the Fall semester

Tuition Fee

- Exchange Students : If your university has a mutual exchange partnership with us then you may be eligible for a tuition waiver.
- Visiting students(Study Abroad) : Students pay tuition fees to both the home university and the host university.

Course Offerings

We offer approximately 100 courses in English per semester throughout various departments. International Students are allowed to take courses from different departments upon availability. The most up-to-date course list becomes available a month prior to the beginning of semester.

Credit Acquirement

- Undergraduate : Up to 19 credits per semester
- Graduate : Up to 9 credits(Master's Degree) / 12 credits(Doctoral degree)
- * Major courses are 3 credits and electives are 2-3 credits in general (1 credit =15 hours).

Designing a Course plan (Recommended Course Combinations)

Class Choices		
Case 1	Courses taught in English Only	If you are fluent in English
Case 2	Courses taught in Korean Only	If you are fluent in Korean
Case 3	Combine Courses taught in English and Korean	If you are fluent in both Korean & English
Case 4	Combine Courses taught in Korean &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lectives	* Korean Language and Culture classes are offered only for international students by levels (Students can register up to 2 courses)
Case 5	Combine Courses taught in English &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lectives	

Korean Language Classes offered by Institute for Sungshin International Education(SIIE)

- If exchange / visiting students want to take Korean Language Classes at SIIE, they can choose one of the following options

Option	Enrollment status		Tuition fee
	Undergraduate	Graduate	
1	9 credits or less	3 credits or less	Free of Charge
2	10 credits or more	4 credits or more	50% off from the original fee will be charged Original fee : 1,400,000 KRW 50% discount fee : 700,000 KRW

SHORT-TERM PROGRAM

SUNGSHIN UNIVERSITY INTERNATIONAL CAMP(SUIC)

About SUIC

SUIC offers the students around the world an opportunity to explore a variety of aspects of Korean Culture and learn Korean language in a highly structured way in a short time.

Program Schedule : During July

Session	Period	Program Fee
Session 1 or Session 2	July / 8 days and 7 nights	750,000 KRW
Session 1 + Session 2	July / 15 days and 14 nights	1,200,000 KRW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every year

- Included : Tuition Fee, Textbooks, Housing, Breakfast and Lunch (Mon-Fri)
- Excluded : Flight, Visa, Insurance Fee, Meals (Weekend and Dinner for Mon-Fri), Personal Expense (Transportation included)

Program Structure and Description

Session I <Korean Language and Korean Tradition>

Session II <Korean Popular Culture>

Session I focuses on learning of Korean Language and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II focuses on learning of Korean Popular Culture, K-Fashion Trend, K-Beauty, and K-Pop.

* Sample schedule

	Day 1	Day 2	Day 3	Day 4	Day 5	Day 6	Day 7	Day 8
Session I	Arrival	OT	Korean Class	Korean Class	Free Time	Field Trip	Korean Class	Departure
		Korean Language					Korean Traditional Dress & Tea Ceremony	
		Cooking Class						
Session II	Arrival	OT	Korean Fashion Trend	K-Beauty Company Visit	Kimchi Making Class	Free Time	Farewell Ceremony	Departure
		Korean Make-Up	K-Pop Dance		Field Trip			

ASIAN WOMEN'S LEADERSHIP PROGRAM

About Asian Women's Leadership Program

Asian Women's Leadership Program is a Trilateral Consortium program of 3 Universities from Korea, China and Japan offering English curriculum on Women's Leadership and mobility from Seoul to Shanghai and Tokyo for all participants.

Program Schedule : 30 days during the Summer Break

Total of 30 participants(10/university) visit all 3 countries over the course of 3 weeks and spend 7 days at each of the 3 campuses.

* Sungshin may be able to offer students from partner universities the possibility of participating in the 7 days-Korea portion of the program upon request.



* Sample schedule

Week 1	Day 1	Day 2	Day 3	Day 4	Day 5	Day 6	Day 7	Day 8
Program in Korea	Arrival & Welcome Ceremony/OT	Lecture	Making Bibimbap	1-Day Trip (Planned by participating students)	Lecture	Visit DMZ (Demilitarized Zone)	Farewell Ceremony	Departure
		Korean Traditional Dress & Tea Ceremony	Lecture		Visit Korean Corporate Company		Free Time	
Week 2	Program in China							
Week 3	Program in Japan							

KOREAN LANGUAGE CENTER

Classification	Regular Course	Short Term Course for TOPIK
Semester	Spring, Summer, Fall, Winter	Summer, Winter
Level	Level 1 ~ 6	Level 3 ~ 5
Prescribed number of students by Class	10-15 students	More than 10 students
Class hours	Mon-Fri 09:00-13:00 (Total 200 hours)	2-3 weeks before test
Text	Korean Textbook publish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chased separately]	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extbook [Purchased separately]
Cultural experience	1-2 times a semester	-
Tuition	1,400,000 KRW a semester	Depends on number of students
Application Fee	60,000 KRW for admission	-
Remarks	Freshmen must register at least 2 semesters Applicants from the countries listed in a separate notice must register 4 semesters and stay in the dormitory for 1 year.	The course might be canceled if the number of applicants fails to meet the minimum required

• Academic Schedule (2021-2022)

Semester	Class Period	Holiday	Application Period
2021	Spring 2021.03.15. ~ 2021.05.26.	3days 4/28(Wed), 5/5(Wed), 5/19(Wed)	2020.12.01. ~ 2021.01.22.
	Summer 2021.06.07. ~ 2021.08.13.	-	2021.02.26. ~ 2021.04.16.
	Fall 2021.09.13. ~ 2021.11.24.	3days 9/20(Mon), 9/21(Tue), 9/22(Wed)	2021.05.27. ~ 2021.07.23.
	Winter 2021.12.06. ~ 2022.02.16.	3days 1/31(Mon), 2/1(Tue), 2/2(Wed)	2021.08.14. ~ 2021.10.15.
2022	Spring 2022.03.14. ~ 2022.05.24.	2days 4/28(Thu), 5/5(Thu)	2021.11.25. ~ 2022.01.21.
	Summer 2022.06.07. ~ 2022.08.16.	1day 8/15(Mon)	2022.02.17. ~ 2022.04.15.
	Fall 2022.09.19. ~ 2022.11.28.	1day 10/3(Mon)	2022.05.25. ~ 2022.07.29.
	Winter 2022.12.07. ~ 2023.02.15.	1day 1/23(Mon)	2022.08.17. ~ 2022.10.14.

※ The above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whether the school deems it necessary



KOREA-CHINA JOINT DUAL DEGREE PROGRAM FOR K-FASHION AND K-BEAUTY WITH PARTNER UNIVERSITIES IN CHINA

Background

To improve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in China and to expand on the education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s from overseas universities, the Chinese Ministry of Education has evaluated and selected universities to implement the “Joint Dual Degree Program.”



Purpose

To export and provide excellent education curriculum in K-fashion (Department of Fashion Industry) and K-beauty (Department of Beauty Industry) to students in China and to promote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 study destination for specialized programs.



Program Details

Partner University	Hebe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HUST)	Shandong Youth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SYUPS)
Dual Degree major	Fashion Design(4-year study)	Make-up Design(3-year Study)
Recruitment number of students	100	100
Start year	September 2013	September 2013
Structure	Two-year study at HUST Two-year study at Sungshin	Two-year at SYUPS Two-year at Sungshin
Degree	Dual Degree – Students will be granted Degree by both Universities	Associate Degree will be granted by SYUPS and Bachelor’s Degree will be granted b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aking Korean Language classes is mandatory for students starting first year of studies and at least one third of the major courses are taught by Korean instructors from Sungshin Women’s University

몽골에서 한국어 교육의 성과와 발전 방향

-국제울란바타르 대학교를 중심으로-

토야 | 몽골 국제울란바타르대학 교수

본 연구에서는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몽골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초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육, 일반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대상으로는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어언어문화학과와 한국어 교육학과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통·번역 교육과정, 한국학 교육과정 및 한국어교사 교육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육 대상은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부속 초중고등학교를, 일반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울란바타르 1세종학당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교육환경은 잘 갖추어져 있는지, 어떠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사들의 연구활동 및 재교육을 위한 어떠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어언어문화학과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통·번역 교육과정은 교육 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성되어 있고, 교과목들의 배열 방식이 위계성 있게 배치되어 있다. 본 교육과정은 그동안 사회적 상황, 학생 및 고용자 요구에 따라 몇 차례 개선되어 온 것은 시기적절한 변화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졸업생들이 갖춘 지식과 능력이 졸업생과 고용자의 필요를 충족한다는 것은 본 교육과정은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해당 수업 특성과 진행 방식에 따라 문법-번역식 교수법, 청각 구두 교수법, 인지주의 교수법, 의사소통 교수법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들은 발표, 토론, 역할극 등 방법을 통해 수업을 진행한 결과 학습자들의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동기 부여가 되었다. 이와 같이 더 나은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교수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를 필요로 한다.

또한 학생의 개성과 건전한 학교생활 태도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것과 교환학생제도와 장학금제도 등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교재 개발이나 학습환경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 교재는 『몽골인을 위한 종합한국어』(1-6) 외에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교재의 크기나 폰트 등 편집적인 문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대량 인쇄 불가, 주제 흥미 저조 등 내용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교재 개발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교재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 국내·외 전문가들 간의 협력이 요구된다.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는 교육

의 질적 수준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3차 대학인증평가까지 받았지만 아직까지 교실이 부족하여 학습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울란바타르 초중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필요에 따라서 영어, 러시아어 등과 비교하면서 상호 간의 차이를 파악하기도 하였다. 울란바타르 초중고등학교는 2004년대부터 한국어 교육을 운영하며 양질의 한국어 교육을 지향해 왔을 뿐 아니라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교육 방법을 꾸준히 유지,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전통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한국어 교육이 발전해 나갈 방향에 맞추어 소박하나마 몇 가지 과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기로 한다.

1. 교육과정의 경우 몽골 통합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삼아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영어와 러시아어 교육과정은 유럽언어공통기준을 활용해서 만들었다. 따라서 한국어도 영어와 러시아어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삼아서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만들 필요가 있다.

2. 교재의 경우 학문적으로 배우는 대학 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교재를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것, 두 교재의 적합성과 통일성의 문제점이 있다. 교사들이 개발 중인 초등교육과정 한국어 교재를 출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사용 중인 교재에 대한 논의를 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3. 현직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통해 초중고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를 위한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울란바타르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학과와 교류하여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좋을 듯하다.

셋째, 울란바타르1세종학당은 국외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 사업으로 시작된 울란바타르1세종학당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몽골에 중고생을 비롯하여 대학, 일반인들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에 꾸준히 노력해왔다. 정규과정 외에 위탁교육, 찾아가는 한국어 수업을 통해 울란바타르 시내 중고교, 관공서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보급하였다. 교육환경 조성 및 교재 개발 사업에 참여했으며, 문화행사나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와 연계하여 한글큰잔치를 비롯하여 한·몽 교류 30주년 행사 등을 지원하며 몽골 내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 외교에 일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화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울란바타르1세종학당 내에 몽골어학당을 개설하여 몽골어를 배우기 원하는 외국 사람들에게 몽골어 초급, 중급을 가르치고 있다. 세종학당재단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육과정과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 교육은 한국어 교육의 좋은 모델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세종학당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용한국어 교육이 중심이다. 학문 목적의 대학 교육과는 차별화 교육을 한다. 하지만 대학 졸업생 중 일부가 대학원 진학이나 유학을 하고 나머지는 취업을 하기 때문에 대학이 완전한 학문 목적의 교육을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대학에서도 중국에는 실용한국어 교육을 배제할 수 없고, 입학생들의 졸업률이 50% 안팎인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는 실용한국어 교육이 더욱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세

종학당 교육이 대학의 한국어학과 교육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세종학당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세종학당재단에서 통번역 과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대학의 한국어 통번역학과가 있음에도 통번역 과목을 개설하는 것은 대학과 공존하기 보다는 대치되는 현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함이 필요하다.

교원 연수나 학술회는 그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는 정보 공유사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몽골은 정보 공유에 매우 민감하여 같은 부서 안에서도 공유의 부재 현상으로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교원연수나 학술 세미나 등 한국어와 한국 문화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연수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학과 세종학당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많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 코로나로 대면 수업에 한계가 있음에도 온라인 수업이나 온라인 강좌, 지방 파견 교육,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는 문화 아카데미 등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다른 곳과는 다르게 커다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프로그램은 자칫 보여주기 식의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숫자나 프로그램 보다는 양질의 교육이 되도록 내실을 다지는 것도 필요하다.

매년 보고하는 결과 보고서를 보면 세종학당이 이룬 성과는 크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매년 분야별 누적 통계를 산출하여 보관한다면 본고에서 언급한 것보다 정확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1993년 ‘울란바타르 한국어학교(UKLI)’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28년 차 몽골에서 한국어 교육에 큰 역할을 해 왔던 국제울란바타르 대학교와 그 부속 기관인 울란바타르 초중고등학교 및 울란바타르1세종학당을 분석 사례로 삼은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의를 지닌 기관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한된 사례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는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몽골 내 다른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 일반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유사한 분석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후속연구를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 또는 기초체계로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ppreciate Korean Classical Poetics From the Perspective of "Xiang"¹⁾

Jin Haijiu (김해구 | 중국절강외대)

Abstract: As a poetic concept, “Xiang” is not only the core but also the backbone of the traditional Chinese poetry. Because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affinity between ancient Korea and China, superficially, the concept of the ancient Korean poetry has almost the same connotation as the traditional Chinese poetry. But from today’s standpoint, we can comprehend the ancient Korean poetry as the phenomen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al Chinese poetry by ancient Korean poets. The concept of “Xiang” in ancient Korean poetry is a typical example of phenomenological interpretation of Chinese poetry by ancient Korean poets.

[Keywords] Xiang; Korean poets; phenomenology; interpretation

[Brief Introduction to the Author] Jin Haijiu, male, Korean ethnicity, Ph.D., professor of Zhejiang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studies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 Original Meaning of “Xiang” and Evolution of “Xiang” in Poetic Criticism

In the traditional Chinese cultural context, all visible and sensible things in the universe can be expressed as “Xiang”. In the ancient Korean cultural philosophy, discoveries and extensive attention to “Xiang” mainly existed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the insights into and interpretations of the concept of “Xiang” mainly fell into two categories: philosophy, and literature and art. According to Choi Hanki, the ancients’ revealing “Xiang” was to “use Xiang and metaphor” to inspire younger/future generations. The concept of “Xiang” is rarely used alone in poetic criticism, but often manifests itself in the mutual interpretation with other concepts.

1) 중한 악부시의 형식과 표현수법에 대한 비교 연구

II. “Xiang”: How Literature Exists and Aesthetics

“Xiang” evolved from visible external presentation to perceptible internal image. “Xiang” reflects the specific existence and aesthetics of literature, and therefore has the status and significance as the backbone concept. However, “Xiang” is always a concept with volatile/ unfathomable “reference”. Ancient Korean poets often fully revealed the concept of “Xiang” inadvertently in their poetic criticism. This paper only studies the two most representative classical concepts deriving from “Xiang”, namely “Qi Xiang” and “Yi Xiang”, to interpret the concept, thinking and emotional implication of “Xiang” in the classical Korean poetry.

“Qi Xiang” originally refers to the natural landscape and phenomena. In the context of poetic criticism, “Qi Xiang” often refers to the overall presentation of the creator’s creative personality. Therefore, ancient Korean poets often described “Qi Xiang” as the most intuitive perception of literary existence.

In the opinion of ancient Korean poets, the “QiXiang” presented in a poem is often closely related to the poet’s creative personality and temperament. So to speak, “QiXiang” even reflects the poem’s mentality. In Korean classical poetic criticism, “Qi Xiang” sometimes reflect a certain spirit of the times. Sometimes, ancient Korean poets also use the concept of “Qi Xiang” to indicate the overall style of a certain kind of poems.

Due to the objective kinship between the classical Korean poetry and the classical Chinese poetry, the “Yi Xiang theory”, as a mature and complete theoretical form, was widely spread in poetic criticism in the Joseon Dynasty.

“Yi Xiang” is a concrete and perceptual aesthetic image. The purpose of “Yi Xiang” or “beyond Xiang” lies not in “Xiang” itself, but in “Yi Xiang manifestation” or “Qi beyond Xiang”. It pursues a realm of ethereality, that is, a wonderful appearance beyond image. However, “Yi Xiang manifestation” and “Qi beyond Xiang” create an infinitely profound and ethereal realm with endless aftertaste and interest, which is the aesthetic effect that “Xiang” cannot achieve.

III. Concepts Mixed with and Deriving from “Xiang”

As the backbone concept of the classical Korean poetic criticism, the aesthetic meaning of “Xiang” is extremely rich, strong and profound, manifesting vigorous life in the sense of phenomenology.

In the classical Korean poetry criticism, “Xiang” has extremely deep and wide coverage and radiation. It not only draws upon from nature, but also shapes human mind; it not only manifests “Xiang” and “beyond Xiang”, but also shows the freedom of nature and individual lives. It is an organic blend of subjective sentiment and objective things, nature and art, life and aesthetics. As how literature directly exists and beauty concentrates, “Xiang” has certainly become the backbone concept of ancient Korean poetic criticism.

2020~2021년도 성신-임명섭 한국학 연구소 지원 현황

2020년부터 약 1년 동안 연구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본 연구소에서 지원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연구 제목	연구 협약 기간
김해구	중국 절강외대	중한 악부시의 형식과 표현수법에 대한 비교 연구	2020.12.24.~2021.12.23.
토야	몽골 국제울란바타르대학	몽골에서 한국어 교육 성과와 전망	2020.12.30.~2021.12.29.
성비락	몽골 국립대	몽골 한국어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방안 연구	2021.03.05.~2022.03.04.
응웬 티 프엉 투	베트남 다낭외대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사동문 사용 양상에 관한 연구	2021.06.01.~2022.05.31.

◆ 성신-임명섭 한국학연구소는 학술연구비 지원사업계획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가. 지원자격 및 신청 조건

- 재외 한국학 기관(대학 및 연구소) 소속 교원
- 재외 한국학 연구원과 공동연구 수행 국내 교원

나. 신청기간 : 2022.03.01. ~ 2022.04.30.

다. 연구기간 : 2022.05.01. ~ 2023.04.30.(1년)

라. 신청서 양식 : 본 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ungshin.ac.kr/shks/index.do>)

마. 신청방법 : 신청서(연구계획서) 작성 후 메일 송부 (shks@sungshin.ac.kr)

바. 연구비 : 오백 만원 내외

◆ Research grant application guide

Sungshin-Im Myeongseop Korean Studies Research Center supports research funds as follows in accordance with the academic research-fund-support-project plan.

A. Eligibility

- Faculty members affiliated with overseas Korean studies institutes (universities and research centers)
- Domestic faculty members conducting joint research with overseas Korean studies researchers

B. Application period : 2022.03.01. ~ 2022.04.30

C. Research period : 2022.05.01. ~ 2023.04.30.(1 year)

D. Application form : Refer to the institute's website

E. How to apply : Fill out the application (research plan) and send it by e-mail (shks@sungshin.ac.kr)

F. Research expenses : around KRW 5,000,000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듯이, 이제는
 반대로 우리나라를 선망하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앞으로 작지만 강한 콘텐츠로 세계 여러 나라에
 한국의 참모습을 알리고,
 한국어를 통해 꿈을 실현하는 글로벌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는 연구소가 되고자 한다.

주소 (0284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수정관 B-718호 ☎ 02-920-7992

홈페이지 <https://www.sungshin.ac.kr/shks/index.do>